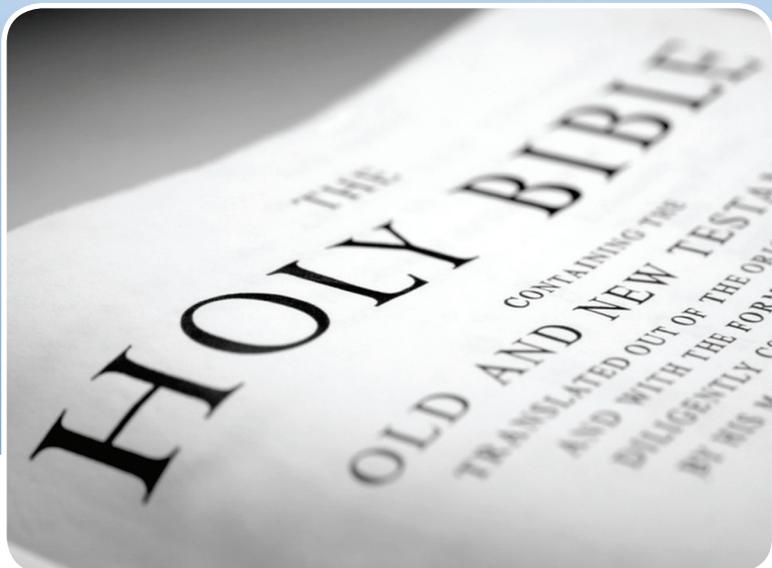


CREATION

TRUTH



미국의 1980년대 vs.

한국의 2010년대

오늘날 미국 교회는 잘 알려진 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실은 이미 Creation Truth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되었다. 많은 교회의 교인 대부분은 70대 이상이다. 그렇다면 1980년대 초에는 이 노인들이 40대였었다는 말인데, 이 노인들이 40대였을 때 미국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예로서 1977년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 성경 무오성 심의회(ICBI, International Council on Biblical Inerrancy)의 창설을 들 수 있다. 이 때 여기에 참석했던 실행위원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당시 교회와 신학을 이끌었던 거목들이었다. ICBI는 목회자와 신학

자들 가운데 성경의 기준과 전통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염려될 만치 멀어진 당시 상황 때문에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설립 목적은 성경무오성의 믿음이 성경 권위의 본질적 요소며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알리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과연 1970년대 말에는 어떤 분위기였기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가? 진화론이 등장한 이래로 1930년대 자유주의 신학의 범람에 맞서 성경을 근거로 '복음주의'라는 신앙운동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1970대 후반에 들어서서 젊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었다.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하지만 성경을 신정통적(성경이 사실이라기 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해석)으로 접근하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복음주의를 재정의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 분위기에 맞서 성경의 무오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바로 ICBI였던 것이다. ICBI는 "쉽게 변할 수 있는 시대적 조류에 성경을 꿰어 맞추려는 자세"를 분명히 경고했다. 그리고 이런 신정통적 자세로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비슷한 시기인 1970년부터 기독교인 과학자들로부터 창조과학 운동이 불기 시작한 것도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보기 어렵게 된 동기는 수십 년의 지구나이를 주장하는 진화론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창조연구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가 설립된 것도 이 때며, 현대 창조과학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ICBI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신(!)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을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 이때부터 복음주의란 단어의 의미마저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 오늘날에 '복음주의'라는 단어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다름 없게 되었다는 것은 신학계 안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변화는 '신학'을 무오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자체 안에서 체계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정된 세계관으로 성경을 분석하는 개인의 지적 활동 영역으로 변질시켜버렸다. 이런 자세는 성경의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신정통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신학을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멀리 떨어져있는 막연한 문제로 취급해버리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0년에는 하나님께서 진화의 순서대로 수십 억년 동안 창조와 진화를 반복하셨다는 '점진적 창조론' 같은 타협이론까지 등장했다. 이런 시도 역시 성경을 사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기록을 바꿀 수 있다는 해이한 생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곧바로 성경을 사실이라고 하는 창조과학 사역까지도 와해시키기까지 했다 (이 이론의 창시자도 자신이 복음주의자라고 한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 교회의 결과는 무엇인가? Already Gone! (이미 떠나버렸다!). 성경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 이상 다음 세대는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를 포함해서)는 어떤가? 아직까지 40대가 교회에 남아있어서 다행일까? 미국도 그때는 40대가 교회에 있었다. 최근 한국에 진화론의 모순을 지적하는 창조과학의 도서가 많이 출판되며 다시 한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세상이 말하는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역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아직도 교회에 젊은 층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시 미국에 점진적 창조론이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십 억년 동안 진화의 순서로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시고, 더욱이 멸종시키기 위해 매번 격변을 일으키셨다는 '다중격변론'과 같은 성경에도 없는 타협이론이 나온 것까지도... 많은 면에서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30년 전 미국과 유사하다. 이 타협 이론은 슬그머니 창조과학 도서목록 사이에 끼어들어 마치 창조과학 서적처럼, 성경을 지지하는 양, 들어가 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틀려도 믿는데는 지장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과연 이런 생각이 다음 세대를 교회에 남아 있게 할 수 있을까?

과연 한국 교회의 30년 후는 어떤가? 아무리 봐도 한국의 교회 내면에는 미국의 30년 전과 비슷한 위기가 왔다. 성경은 무오하다! 이 고백 위에서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으며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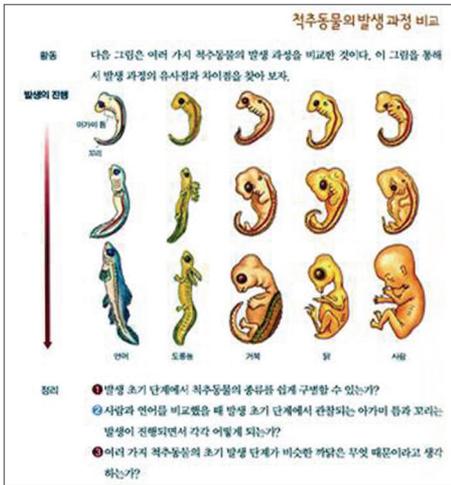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AFTER EDEN

by Dan Lietha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동물과 닮았다고?



배아 발달 과정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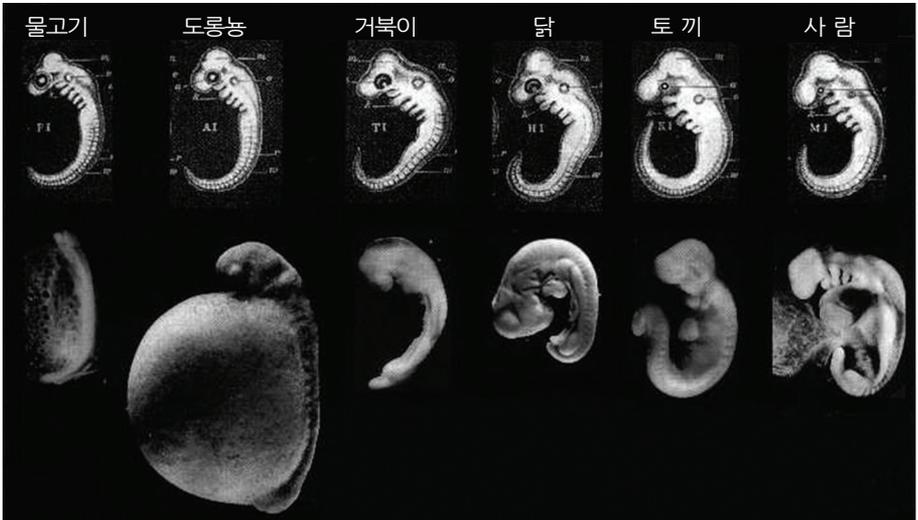
Creation Truth 독자들도 옆의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태 안에 있을 때 사람과 동물들의 성장과정을 나열한 그림이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 모태 안에 있는 초기 상태를 ‘배아’라고 부른다. 교과서에서는 이 그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척추동물들의 배아가 모태 안에서 그 모습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것은 모두가 한 조상에서 진화되었다는 증거다”

이 그림은 187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35년 전인데, 독일인 진화론자 헤켈이 발표한 논문 속의 그림이다. 그는 이 그림들을 보여주며 “척추동물의 배아가 발생하는 모양을 보면 진

화과정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으로 헤켈은 아주 유명해졌고, 사람들에게 진화론을 믿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헤켈의 이 논문은 이미 학계에서 “생물학에서 가장 유명한 위조 논문”으로 악명이 나있다. 진화론자의 리더였던 굴드 박사조차도 “백 년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무심함에 대하여 심히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였으니까. 저자인 헤켈은 자신이 믿고 있던 진화론 쪽으로 답을 유도하기 위해 배아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여 서로 비슷하게 손질한 것이다. 오른쪽 그림의 윗 줄은 조작된 그림이고 아래 줄은 각각의 실제 사진들이다. 와우! 정말 다르지 않은가? 어떤 것은 그 크기가 진짜보다 열 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다. 헤켈의 논문은 발표 당시에도 생물학자들에게 많은 비평을 받았었다. 결국은 헤켈 자신도 그림을 조작했음을 스스로 시인하기까지 했다는 사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지금까지 교과서에 남아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실제로 사람이나 동물들은 배아 형성되는 시기부터 그 기능이 분명히 구분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서 헤켈의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났다. 이 그림은 단지 교과서 안에만 머물러있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그림을 보는 학생들에게 인간은 동물 중의 하나라는 진화론적 사고를 넣어준 것이다. 특별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인간과 동물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인공낙태가 증가하는 그릇된 계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보면, 진화론을 일찍 받아들였던 유럽과는 달리,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었던 미국은 1960년도가 되어서야 공립 중 고등학교에서 진화론만을 교육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까지 인공낙태가 거의 없었던 미국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공낙태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



헤켈의 그림과 실제 사진

다. 진화론 교육이 시작된 지 약 1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헤켈의 논문과 진화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결혼을 하게 된 이후부터 인공낙태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결과는 진화론은 단지 그릇된 과학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 안타까운 예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를 뭐라고 했을까? “내 형상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시 139:16)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사 44:2).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은가? 우리 모두는 아빠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있던 소중한 사람이다. 과연 Creation Truth 독자들 가운데, “나는 배아 시절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손들어볼까요? 그렇다 우리는 모두 배아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절이 없던 것이 아니다. 기억이 나지도 않던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계획하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재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최초의 생물체, 식물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명령 하셨다.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창세기 1:11). 그러자 땅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창세기 1:12). 이렇게 창조 된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었다(창세기 1:1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생물체는 식물(vegetation)이다. 사람들이 살게 될 지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주간 제 3일에 드디어 우리가 생명체(living organism)라고 부르는 식물들을 창조 하셨다. 그러나 성경은 식물들을 생명체(living creature)라고 부르지 않는다. 식물들은 머리도 없고, 피도 없다. 원줄기가 잘려 나가도 죽지 않는다. 이 식물들은 동물이나 사람들의 양식으로 혹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건들이었다(창세기 1:29-30).

여기서 종류대로(after their kind) 창조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로 ‘민(min)’이란 단어를 ‘종류(kind)’로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는 한계 즉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종류는 변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창조된 종류는 지금도 모든 식물계에서 관찰되는 사실이다. 다양한 형태의 해바라기들은 서로 교배가 되지만 씨 모양과 꽃 색깔이 비슷해도 해바라기 수술과 호박 암술로는 어떤 씨도 맺지 못한다. 완전한 생식적 격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들 각 종류의 식물들을 꽃과 열매가 달린 성숙한 모습으로 순간적으

로 창조 하셨다. 식물의 씨앗이나 어린 묘목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씨가 맺혀 있는 채소와 열매를 창조 하셨다. 왜냐하면 그 식물들을 먹고 살 동물들과 사람들이 각각 창조 5일째와 창조 6일째 창조 되기 때문이다. 창조 3일째가 저물어 갈 무렵이 지구의 모습을 그려 보라! 지금의 원시림처럼 우거진 숲은 물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푸른 초원이 있는 한 폭의 그림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진화가설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달리, 수십억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가장 간단한 세포가 저절로 생겨났고, 스스로 진화 하여 물 속에 사는 다세포 조류(藻類, algae)가 되고, 조류에 우연히 새로운 기능이 생겨 물 밖에서 살 수 있는 선대식물로, 그리고 계속 진화하여 양치식물로, 더 진화하여 씨를 맺는 종자식물로 진화했다고 한다. 한 종에서 다른 종이 생겨나고 또 다시 다른 종이 생겨나고... 이렇게 수 억년을 더 지나는 동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종의 식물들로 진화되어 왔다고 우스운 말을 한다. 또, 진화가설의 영향을 받아 창조의 순서는 인정하지만 그 하루를 수 천만년 혹은 수 억년의 긴 기간으로 생각하는 안타까운 크리스천들도 있다. 꽃이 피어 씨와 열매를 맺는 각종 식물들이 벌과 나비들을 수 억년 기다렸을까? 창조 4일째 창조 된 태양 없이 식물들은 얼마나 긴 기간을 살았어야 할까?



식물들은 성경에 기록 된 그대로 물이 드러난 창조 3일째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순간적으로, 모든 종류의 식물들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창조 되었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 하실 때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즉시 되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하나님을 아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1 장에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10 번이나, 좋았다는 말씀을 7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셨을 것이다. 논리와 법칙을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도 일관성 있게 지구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순서대로 차례차례 진행하셨다.

식탁에 올려져 있는 음식들 중에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 채소와 과일나무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 하셨다. 그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총명함과 마음껏 누리려는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6월에는 7회의 탐사여행과 세미나들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조과학 사역자 양성을 위한 창조사역 집중훈련(ITCM-1)도 시작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의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4/8-10), 나성 순복음교회(4/13-15, 이상 이재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 모두 세미나 후에 2세들을 위한 세미나와 11월 탐사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오는 6월 노회 목사님들, 내년 2월에는 남미 선교사님들 탐사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4/16)에서는 초등부(김낙경), 중고등부(김선옥), 성인(이재만) 반으로 나누어 각 방에서 동시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방에서 연령대에 맞는 수준과 공금증을 갖고 마치 창조과학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른들에게 창조과학 세미나를 할 경우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이 내용을 들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난 4월 18-20일 순복음 라스베가스교회(담임목사 강일창)에서는 EM 중고등부 탐사여행을 마쳤습니다. 인도는 창조과학선교회 EM 담당이신 김선옥 박사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에서는 내년에 북미 EM 리더들을 위한 탐사여행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2세들이 성경에 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충현선교교회는 6월 20-22일 졸업을 한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탐사여행을 출발합니다. 대학이나 직장을 갖기 전에 사실인 성경이 각인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최근 EM 사역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창조과학 사역의 중요성을 아시고 기도와 후원을 해주신 한인교회의 결실입니다.

Grace Mission University 대학(총장 김광신 목사, 4/18-20)와 안산동산교회(담임목사 김인중, 4/25-29) 탐사여행이 지난 4월 있었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뿐 아니라, 수십 역년의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이며, 교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데 있어서 창조과학이란 복음의 도구의 중요성도 인식했습니다. 앞으로 탐사여행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했습니다.

6월 예정 된 탐사여행들

6월에는 7 회의 다양한 탐사여행들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개인 모집, 3회 신학생, 12차 유학생, EM 고등학생, 한국 교회에서, 뉴욕 교회에서 그리고 교단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탐사여행입니다. 간증란을 통하여 창조과학탐사여행의 효과들이 일부 전해지기는 하지만 실제 효과는 글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준비되고 이웃들과 2세대들에게까지 연결 되도록 소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디에고 1일 탐사여행

Next 사랑의교회(담임목사 김일영, 4월 2일)와 선한목자장로교회 상록회(담임목사 고태형, 4월 26일)는 샌디에고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 견학과 토리파인 비치에서 노아홍수 증거를 답사 하였습니다. 지구 역사를 보여주는 창조 박물관 관람은 실제적인 복음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박물관입니다. 또한 창조과학 탐사여행의 맛을 볼 수 있는 1일 탐사여행을 통하여 성경 기록에 대한 사실성에 눈을 뜨게 되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GMU(위)와 안산동산교회(아래) 탐사여행 참가자들





새로운 천문우주 모델

시간의 팽창과 정지(5)

지난 칼럼에서 어떻게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빛들이 지구에서 수천년의 짧은 시간에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새로운 우주모델을 통하여 설명하였다.^{1, 2}

이번 칼럼에서는 창세기의 홍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두번째 시간의 팽창에 대한 험프리 박사의 설명을 다루려고 한다.

노아홍수 동안 두번째 시간의 팽창

이전 출판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험프리 박사는 다음의 동일한 두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주에는 두번째 공간의 팽창과 시간의 팽창이 홍수 기간 동안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2, 3}

시편18편 9절과 사무엘하22장 10절은 동일한 것으로 “저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bowed)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둑캄캄하도다(He bowed the heavens also, and came down: and darkness was under his feet.)”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중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암시해 준다. 다윗은 이시편에서 “이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라(시18:7)”라는 대 격변의 홍수심판을 언급하면서 당시 위험으로부터 주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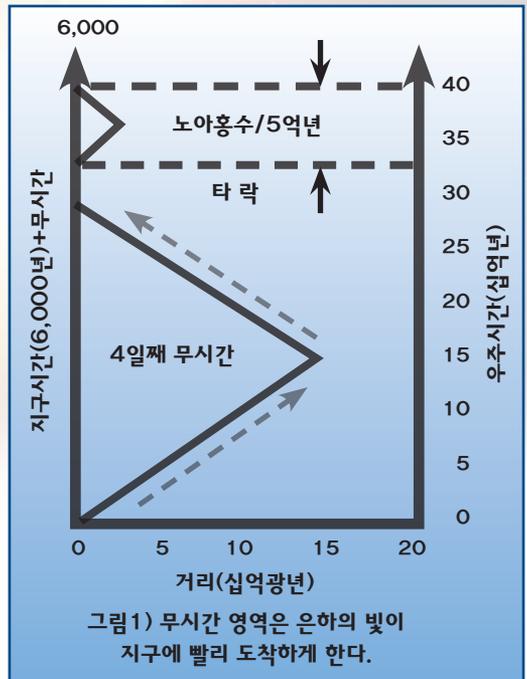
여기서 굽혀진(bowed)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나타(natah)의 주된 의미는 팽창(stretched)을 뜻한다. “드리워진 또는 굽혀진(bowed)”것으로 번역한 것은 가능성 있는 번역 중에서도 거리가 조금 먼 뜻이다. 참고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그 동일한 단어를 하늘의 팽창(stretched out)으로 번역하고 있다. 험프리 교수는 첫번째 의미에 무게를 두고 이는 하나님이 창세기의 홍수 기간에 지구에서 측정된 일상의 속도 보다는 더욱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펼치신 것을 암시한다고 보았다.

노아홍수 기간에 있었을 격변적인 사건들이 우주공간이 펼쳐지는 동안에 시간의 팽창이 발생한 것을 시사하며, 그 펼쳐짐이 지구에서 볼때 매우 빠르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1의 상단에 있는 작은 삼각형 영역은 6일 창조 후 1656년 발생한 노아홍수 기간이

다. 이 영역에서 팽창과 수축은 광속보다 더 느려졌고 수십만 광년 거리의 밖으로 향한다. 이 기간 동안 만일 노아가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면 지구 상에서 그 모습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었을 것이다. 적당한 망원경으로 그가 약 5억 년이나 오래 성장된 은하들까지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나선형 은하들은 더욱 감겨졌고, 별들은 HR(Hertzsprung-Russel)도표 상에 더욱 전개되었으며 초신성(SN)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을 것이다. 무시간 영역의 광속의 퇴행 속도와 결합된 이 두번째 시간팽창은 왜 먼 은하들, 특히 먼 나선형 은하들이 근접한 은하들 보다 더 짧게 보이지 않는 지 그 이유들을 잘 설명해 준다. 이 사실들이 무시간 영역의 유효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주시간과 지구시간

두번의 우주 팽창을 경험하는 동안 지구는 무시간 영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지구 상에서 기능을 하는 지구시계와 깊은 우주에서 기능을 하는 우주시계의 시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경미한 숫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만일 지구의 창조가 지구 시간으로 약 6000년 전이었다면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는 물체의 창조는 우주시간으로 약 150억년이 된다. 따라서 두 시계의 어림 차이는 약 2,500,000 배가된다. 이는 그림1의 좌측에 있는 지구시간 눈금이 척도(스케일)로 그려질 수 없음을 뜻한다. 아마도 지구시간 눈금 상에 있는 시간은 첫번째 6일 창조 구간으로부터 노아홍수까지 약 1656년 동안 오늘 날 우리가 경험하는 동일한 속도로 흘렀을 것이고 그리고 홍수로부터 오늘 날까지 4천년이 또한 동일하게 흘렀을 것이다. 지구 시간 눈금은 우주시간 눈금에 비해서 압축되었고 무시간 영역 내에 존재하는 기간 이었다. -계속



번역·정리 /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출처: ACTS & FACTS 2011년 2월호

참고문헌 / 1. Humphreys, D.R. 2008, New time dilation helps creation cosmology, Journal of Creation, 22(3): 84-92
 2. Humphreys, D.R. 1994, Starlight and Time, Green Forest, AR: Master Books.
 3. Humphreys, D.R. 2000, Accelerated Nuclear Decay: A Viable Hypothesis? In Radioisotopes and the Age of the Earth: A Young-Earth Creationist Research Initiative, Vol.1. L. Vardiman, A. Snelling and E. Chaffin, El Cajon, CA: ICR and St. Joseph MO: CRS, 333-379. See especially pages 367-368.



돌연변이
눈 색깔 변화
작은 변이



소진화/종분화
새로운 종으로 변화
큰 변이



대진화
시스템 변화
진화

진화, 한 이름, **많은** 의미

누군가 당신에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대답하겠는가? 아마 웅당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요즘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예전만큼은 아니다”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다른 이들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를 떠올리면서 “아니다”고 단언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꺼풀 벗겨보자. 질문자는 과연 무슨 의미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을까? 당신은 과연 무슨 의미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해했을까?

누군가 당신에게 세포는 복잡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번엔 무엇이라 대답하겠는가?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같은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 도대체 “복잡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얼마나 복잡하면 복잡하다고 확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가?

과학은 어떤 현실의 단면—민주주의 제도 혹은 복잡성—을 “개념화”하는데서 출발한다. 민주주의제도나 “복잡함”은 물건처럼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어떤 이름을 붙여주어야 한다. 그 이름짓기를 개념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해야 한다.

“진화”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적응하는 현상에 대해 “진화”라는 이름을 붙인다. 변화나 적응은 무언가 진보적인 방향성이 없어 아쉽다. 단순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것만으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아쉽다. 그래서 진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머리 속에서 그리고 있는 “어떤” 현상—변화하되,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개념인 것은 분

명하다.

창조론과 진화론 진영 사이에는 진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의 논쟁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독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다. 우리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세례요한인지, 제자 요한인지, 베드로의 아버지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사실 “어떤 의미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통정리가 없으면 진화론이 맞다 틀리다 하는 단순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진화, 특히 생물 진화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첫째, 돌연변이를 생각해 보자. 돌연변이는 말 그대로 “변이”이지 진화는 아니다. 돌연변이는 수없이 관찰되는 현상으로 만일 진화라는 말이 돌연변이를 의미한다면 용어의 사용에 문제가 있다. 돌연변이를 진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돌연변이가 진화 자체는 아니다.

둘째, 이른바 “소진화”가 있다. 이는 어떤 한 종이 자연적 격리 및 자연선택에 의해 더이상 교배가 불가능한 상당히 다른 종으로 ‘종분화(speciation)’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만약 진화라는 말이 소진화를 의미한다면 창조론/진화론 사이에 논쟁은 없다. 여기서 ‘소진화’란 단어는 잘 못 선택된 단어로 ‘변이(variation)’ 혹은 ‘종분화’라고 해야 옳다.

셋째, 이른바 “대진화”가 있다. 이는 어떤 류, 즉 단세포생물에서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도약적 진화이다. 즉 새로운 기관이나 기능이 새로운 유전정보의 증가로 생겨나는 도약적인 변화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생물진화론의 핵심은 이 현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화를 이런 개념으로 쓸 때, 진화를 지칭하는 실체가 우리 손에 없다는 점이다. 대진화는 소진화에 기반하여, “그렇다면 이 정도의 도약도 가능하지 않았겠는가”하는 추론이지, 그에 상응하는 실체가 없다.

진화를 과학적으로 대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다분히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철학적 진화론자들은 이 부분에서 쉽게 도약하고 싶어한다. 반면 창조론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진화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다윈주의자들은 돌연변이와 소진화의 연장선상에서 대진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창조론자들과 일부 진화론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창조론적 연구자들이 진화를 부정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초점이 어긋난 말이다. “어떤 진화”를 이야기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진화 개념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생물들을 창조하신 가운데 어떻게 다양성을 부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사실이다. 하지만 마지막 세번째 진화 개념은 1) 실체의 뒷받침 없이 개념만 있으며, 2) 그 개념은 반 경험적이며, 3) 돌연변이와 소진화가 이 진화를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개념에 상응하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사랑한다. 그러나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은 실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는 우리 머리 속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다.



최태현 박사
행정학



생터성경사역원

Feb. 28 - Mar. 4, 2011

역사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실제'임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확인될 놀라운 경험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과학 탐사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꼭 경험시켜주고 싶은, 값진 여행이다. -한미영 사모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생생한 현장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고 강하게 인상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와 기독교 기관이 그리고 교육기관에 창조과학반과 성경반이 생겨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가장 기초적인 사상과 정신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기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윤재병 목사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다가 창조의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감동과 힘이 납니다. 특별히 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명진 목사

10년 전에도 버스를 타고 이번 탐사여행과 같은 코스를 여행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랜드캐년의 광활한 웅장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라는 사실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말입니다. -주인숙/신촌감리교회

첫째 날부터 시작된 이제만 선교사님의 강의와 지층들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창조주가 구원자로 오시고 그분이 창조때부터 지금 나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 사랑의 표현들은 진실로 분명하고 결코 부인할수 없는 정도의 정확한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 -한숙정/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을 볼 때마다 즐겨 볼렀던 찬양. 하지만 이번 여행 동안 이 찬송이 더 이상 불리지지가 않았다. "얼마나 아픈걸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너무 가슴이 아팠다. 심판의 현장들을 돌아보며 이 현장이 어떤 것인지 진실을 모른 채 좋아하며 감탄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이 사역이 확장되어야만 하는데... -조민경/ 서울 대교교회

다음세대에 청년들이, 학생들이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을 꿈꾸며 기도했는데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하면서 또 한번 아이들을 생각하게 한다. 많은 아이들이 진화론에 묻혀 있는데... 이 청년들,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것을 보고 들어야 하는데, 창 밖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났다. ... 아 하자! -정경희/ 서진주 교회

처음세상은 얼마나 좋았을까?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내게 있다는 것이 더욱 감사함을 느끼고 이제만 선교사님의 강의도 좋았지만, 전해지는 은혜에 감동받고 갑니다. -유은숙/ 대구 동산교회

하나님 당신은 진정 창조주이십니다. 말로만,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 평생 믿어왔던 믿음이 이제 완전해지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바뀌어질 제 삶에, 인도해나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김회란/ 서울 대애교회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보고 듣고 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참여하며 중국땅에서도 창조탐사여행들이 이루어질 기도제목을 갖고 돌아갑니다. -조은혜 선교사

진화론과 창조론의 나뉘는 가인계열과 셋 계열을 보는듯 했습니다. ...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종원/ 포도원교회

세계사 끝에는 승리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그리스도를 만날 주의 백성들을 꿈꾸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도 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이 심판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 있어질 저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정연미 사모

창조과학탐사여행! 일생을 통하여서 여러 여행 가운데서도 이번 여행은 가장 유익하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집에 가면 성경책을... '창세기'를 정독해 보고 싶다. -정경애/ 부산 부전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면서 말씀만이 그 영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와 보라' 했던 것처럼 왔을 때 확신하고 돌아가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증거하렵니다. 그래드캐년의 생생한 증거가 그것임을 저도 확신합니다. 다음세대가 창조탐사여행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팔이 되려구요. -배순희/ 대구봉덕교회

이 여행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것 같습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뼈속까지 느끼게 되었으며 우리에게 '내가 창조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삶을, 남은 삶을 그 멋진 하나님 알리기에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봉명희/ 대구 제일감리교회

● 편집되지 않은 전체 간증은 홈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1년 ACT Schedule

- 6/6-9 창조과학 탐사여행 (목동 지구촌교회, 213-381-1390)
- 6/10 다솜교회 (이재만), LA, 562-405-1988
- 6/11 순회선교단 미주지부 (최태현)
- 6/12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6/13-16 창조과학 탐사여행 (CGN-TV, 213-381-1390)
- 6/19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6/19 LA 온누리교회(최우성), LA, CA
- 6/20 창조과학탐사여행 EM(충현선교교회, 213-381-1390), Glendale, CA
- 6/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Fuller 신학생, 213-381-1390)
- 6/20-22 창조과학 탐사여행 (순복음복미노회, 213-381-1390)
- 6/23-25 빙하시대 탐사여행 (개인모집, 213-381-1390)
- 6/26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6/26-30 새한장로교회 EM (김선옥, 770-619-5340), Alpharetta, GA
- 6/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12차 유학생, 213-381-1390)
- 6/28-7/1 창조과학 탐사여행 (예일장로교회, 516-938-0383)

- 7/3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7/11-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커피 브레이크, 213-381-1390)
- 7/16 샌디에고 탐사여행 새생명비전교회 성인(최우성)
- 7/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개인 모집, 213-381-1390)
- 7/25-27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213-381-1390)
- 7/30 샌디에고 탐사여행 새생명비전교회 EM(최우성)

- 8/8-12 미주장신대 (최우성), Santa Fe Springs, CA
- 8/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 연합, 종교교회, 교사팀, 목동지구촌교회, 담당자: 이성호집사 010-2221-8855 한국 or 213-381-1390 미국)
- 8/12-14 좋은씨앗 교회 (이재만) (PA)
- 8/18-20 창조과학 탐사여행 (은혜의 빛 장로교회, 925-639-0474)
- 8/21-27 일본인 창조과학 탐사여행

- 9/3-5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382-5658)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